

아끼지 않고 그 아이를 도왔지. 풀은 이 분지를 빙 둘러싸는
오솔길을 하나 내고, 거기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개의 다른
오솔길이 중앙 부근으로 모이는 형태가 되도록 길을 닦았
네. 가장 험준한 지대를 잘 살려서 아무리 땅이 울퉁불퉁
해도 쉽게 산책할 수 있도록, 또 손수 심어 기른 나무들도
야생의 식물들과 잘 어우러지도록 가장 적절한 조화를 이
루어 냈네. 저렇게 지천에 깔린 돌맹이가 지금 보고 있는 이
길들뿐만 아니라, 이 섬 대부분의 지대를 험난하게 만드는
것인데, 풀은 그 돌맹이들을 가져다가 여기저기 피라미드를
쌓아 올리기도 했다네. 흙을 섞어 토대를 만들고, 바위틈
에서도 잘 자라는 장미나무며 포인시아나나무며, 또 다른
관목들이며 할 것 없이 뿌리를 구해 와서 그 토대에 잘 다
져두었지.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거무튀튀한 빛깔의 불품없
던 피라미드를 녹음이 물들이고, 또 세상 가장 아름다운
꽃들의 화사한 빛이 감싸주었네. 깊숙이 팬 구렁에는 가장
자리를 따라 죽 늘어선 고목들이 구렁 안쪽으로 비스듬히
고개를 숙이고 있어, 천장을 궁륭으로 덮은 모양의 지하
통로가 형성되었는데, 그 안으로는 열기가 파고들 수 없어
누구든 낮 동안에는 거기서 신선한 바람을 쐬며 쉬어가곤
했지. 오솔길 하나는 아담한 원시림으로 이어져 있었고, 그
가운데에서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과수나무 하나가 바
람을 피해 자라고 있었어. 저쪽에 곡식을 걷는 땅이 있었
다면, 이쪽으로는 과수원이 꾸려졌네. 이쪽 길에서는 집들